

## 夢遊錄의 歷史意識과 類型的 特質

鄭 學 城\*

### 1. 緒 論

夢遊錄은 朝鮮의 士大夫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로서, 故人の 亡靈들을 꿈속에서 目擊했던 奇事를 서술한 이야기들이다. 이들 작품은 小說이라 할 수는 없으나 虛構를 꺼리던 朝鮮 士大夫들에 의해 창작, 수용된 虛構的 叙事文學이라는 점에서 假傳體와 함께 그 小說史의 가치가 증시될 수 있다.

夢遊錄을 小說史의 전통 속에서 파악하려는 관점 아래, 이제까지 학자들은 이들 작품을 夢遊의 모티프를 가진 여타 說話나 小說들과 관련·비교시키면서 논의해 왔다. 그리하여 夢遊錄은 하나의 독특한 小說 類型으로 규정되고, ① 入夢—覺夢이라는 公式的 構成 ② 현실 비판과 이상 토로라는 강한 윤리적 主題意識 ③ 불만에 찬 慷慨志士라는 작가(또는 주인공)의 성격 등과 같은 공통점이 그 유형적 특질로 抽出되었다.<sup>1)</sup>

그러나 夢遊錄을 특이한 하나의 문학장르로 보고 이에 대한 장르론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한 것은 최근 徐大錫教授의 논문에서 였다.<sup>2)</sup> 夢遊錄과 小說과의 차이를 밝힌 이 논문에서 夢遊錄은 여타의 夢遊說話나 小說과는 달리 “作品 外의 事實의 意味를 傳達하는 敎述장르”라고 규정된다.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 夢遊錄의 구조적 특성은 여기서 명백히 드러났으나,

\* 博士課程(國文學專攻)

- 1) 張德順, '夢遊錄小考'(東方學志 4, 延大出版部, 1959)  
車裕柱, '夢遊錄과 夢字類 小說의 同異에 대한 考察'(淸州女師大論文集 3, 1974)
- 2) 徐大錫, '夢遊錄의 장르적 性格과 文學史의 意義'(韓國學論文集 3, 啓明大, 1975)

한편 夢遊錄의 敘事的 特質은 무시되고 小說史的 關聯도 멀어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각기 관점은 다르나 夢遊錄系의 각 작품과 夢遊錄의 유형적 特質 및 그 문학사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이제 本稿는 이상의 논의 성과를 받아 들인 위에, 아래와 같은 작품들<sup>3)</sup>을 중심으로 다음 몇가지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夢遊錄에 대한 既往의 연구를 補完코자 한다.

첫째, 夢遊錄이라는 특이한 類型의 작품들이 특정 시대에 왜 創出되고 流行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장르의 形式論的 論議와 主題論的 論議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解答을 얻을 수 없으며, 下位類型 또는 장르로서 夢遊錄의 歷史的 性格이 分明해 지지 않는다. 우리는 夢遊錄이 歷史的 矛盾이 深化되던 朝鮮中期 兩班官僚社會라는 특정 사회·역사적 배경과 이에 대응되는 士大夫들의 固有한 文化意識·文藝傳統의 所産임을 注視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는 創出 당시의 두 작품 大觀齋夢遊錄과 元生夢遊錄을 중심으로 그 出現 背景을 작품 구조와 관련시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두 작품은 餘他 作品的 源泉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문학적 가치의 면에서도 가장 注目할 만하기에 특히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章을 달리하여 집중적으로 照明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작품의 윤리적 내용에 대한 검토이다. 夢遊錄의 작가나 주인공이 義氣方壯한 慷慨志士라 해서 곧 작품 내용의 倫理的 正當性이나 普遍性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夢遊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歷史 過程과 現實을 認識하는 작가의 태도와 신념이다. 우리는 각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떤 사회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가의 의식이 當代 역사 과정 속에서 실현할 수 있었던 역사적 기능과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보다 엄격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들 작품의 형식에 대한 문제로서, 역사적 事實과 虛構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란 결국 현실(또는 사실)과 허구적 질서와의 관련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필자가 보기로는 夢遊錄 작품들에서 사

3) 大觀齋夢遊錄·元生夢遊錄·金華寺夢遊錄·泗水夢遊錄·連天夢遊錄·皮生眞夢錄·江都夢遊錄 등에 本稿의 관심은 국한된다.

실이 제시되는 방식은 작품의 목적이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理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같이 叙述方式(事實의 제시 방식)에 따라 夢遊錄의 유형을 구분하고 작품의 의미에 접근하려는 관점은 夢遊錄의 叙事的·虛構的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작가의 의식의 방향 특히 역사의식의 포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각기 章을 달리하여 이 두 가지 유형의 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역사의식을 작품의 虛構的·叙事的 構造와 관련하여 概觀함으로써 둘째, 셋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夢遊錄의 유형적 특질과 장르적 성격이 再構될 수 있다면, 夢遊錄의 文學史的 위치가 小說史的 측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작품은 그러나 각기 독자적 세계를 가진 개별적 작품들이다. 기왕의 연구가 아직 未洽했던 작품 분석에 內實을 기하기 위해, 각 작품이 지니는 개별적 특성이 유형적 특질과 함께 言及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2. 理念提示型 夢遊錄

「理念提示型」夢遊錄이란 꿈 속에 時空을 초월할 수 많은 儂人이 등장하여 그들의 理想國을 꾸미거나 寔樂을 벌이는 내용의 작품들을 말한다. 大觀齋夢遊錄·泗水夢遊錄·金華寺夢遊錄 등이 이 유형의 작품에 속하며 大觀齋夢遊錄은 그 최초의 작품이다.

### 1) 大觀齋夢遊錄의 幻想과 그 背景

大觀齋夢遊錄<sup>4)</sup>에서는 崔致遠·乙支文德을 爲始하여 李奎報, 鄭道傳, 金宗直 등 高麗—朝鮮朝의 文士를 통해 封建官僚社會가 이상적 형태로 제시된다. 그들의 文才에 따라서 官職이 配授되며, 주인공인 작가는 이곳에 와서 封建官僚로서 가질 수 있는 社會的 欲求와 意志를 완벽하게 실현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이 작품이 과거 文人들과 그들의 詩라는 文學史的 事

4) 資料는 張德順, 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 1973) 所載本

實과 그 傳統에 대한 관심 속에서 창작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漢詩에 대한 士大夫層의 오랜 관심과 詩話와 詩評의 오랜 文藝傳統 위에서 이 작품은 창작된 것이다. 그러나 詩話와 詩評을 버리고 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에게 있어서 事實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것이며, 그 주된 관심은 오히려 歷史過程의 實在와는 거리를 멀리 둔 幻想의 虛構 自體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을 창작한 진정한 이유는 그러므로 작품의 허구적 의미와 형식을 중시하고 이를 당대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시키는데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文士들의 理想郷을 그린 이 작품의 幻想은 대체로 15세기 후반에 형성된 관료적 문인 집단의 타락에서 그 배경적 관련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權力과 土地를 兼掌한 勳臣勢力이 貴族化의 경향을 나타냄과 同時에 文學의 材能이 官僚的 機能에 우선적 필수 요건이 된다는 의식이 流行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5)</sup> 이처럼 文學을 수단으로 하여 官僚로서 政治·文化的 기능을 수행한다는 그들의 文化意識은, 보다 불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公明한 정치윤리를 무기로 삼아 그들에게 도전해 온 新進士林과의 對立속에서 점차 自己防禦的인 理念的 性向을 띄게 되었다.

작가 沈義는 兩勢力集團 間的 對立이 가장 격화되었던 時期에 官僚로 활동하던 人物이었다.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그는 功臣 沈貞의 親弟였음에도 불구하고 當代의 執權 勳臣勢力 一角의 타락한 정치 윤리와 귀족 지향적 의식에 대해서 무척 강한 反感과 批判意識을 보인 인물이었다.<sup>6)</sup> 그러나 그는 뛰어난 文才를 가졌었고, 己卯士禍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官職에 出仕하여 그의 才器를 펴려는 포부를 버리지 않았던 인물이었다.<sup>7)</sup> 이러한 그는

5) 李家源, '儒家思想과 韓國文學'(韓國思想大系 I,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3) 및 林榮澤, '16世紀 士林派의 文藝意識'(韓國學論集 3, 啓明大出版部, 1975) 參照

6) 沈義와 南滾, 沈貞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燃藜室記述에 의거한 張德順 教授의 소개(國文學通論, p. 294)가 있었다. 實錄의 기록을 보면 沈義는 己卯士禍가 있기 직전 南滾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滾이 사직하기에 이른다. 또 史臣의 記錄에 따르면 朴堉과 義는 동년배와 의논하여 그의 行 貞을 탄핵하도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中宗實錄 卷36 中宗 14年 9月 己卯條

7) 젊어서부터 그는 輪對를 통해 또는 箴이나 疏 등을 올려 上奏를 계속했는데,

훈구 관료로서의 사회적 입장과 文化意識의 制約을 벗어나지는 못한 人物이었다.<sup>8)</sup> 그리하여 그는 당대 관료사회 속에서 타락한 훈신들로부터도, 편견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강직한 士林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疎外를 自招하였다.<sup>9)</sup>

大觀齋夢遊錄이 씌어진 中宗 24年(1529)은 집권 훈신 세력이 정치적 윤리의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관료로서 力量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들 內部的 분열과 부패 속에서 타락해 가던 시기이다. 그리고 작가 沈義에게 있어서는 좌절과 불안 속에서 모순된 社會를 희롱하며 지내야 했던 시기이다. 기존의 정치·사회 질서에 安住하면서 文學을 통해 이를 세련, 강화시킴으로써 봉건관료로서 文化的 機能을 수행하겠다면 훈구 관료—문인 집단의 이념은 退色해 버린 것이며, 관료적 문인이었던 沈義로서는 자신의 社會的 基盤을 상실하고 만 것이었다.

한대 大觀齋夢遊錄이 보여 주는 작품 세계는 이상과 같은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완전히 相反되는 세계이다. 앞서 개략한 바 작품 속에 구축된 세계는 관료적 문인의 理想的 世界라 할 수 있으며 작가인 주인공의 욕구와 의지가 갈등 없이 전개되는 환상적 체험의 세계이다. 이와 같은 작품 배경과 내용과의 대립적 상관관계를 두고 볼 때 이 작품은 당대 훈구 관료—문인 집단의 분열과 타락, 그리고 역사 과정의 모순 속에서 작가가 체험한 좌절과 불안에 대한 反動으로 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작가에게 요구된 것은 당면한 역사 과정의 모순과 좌절을 부정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事件의 체험이었던 것이다. 알다시피 虛構는 主觀의 理想과 意志의 작용으로 형성되며, 虛構의 叙事文學은 이의 행동적 실현을 지향하는 문학이다.

中宗은 그의 直言을 사랑하고 名文에 감동하여 官職을 特進시키기도 했으나, 주위에서는 그가 官職만을 탐한다고 비방하였으며, 이 때문에 그의 官職은 顯達하지 못했다. 中宗實錄 卷9 中宗 4年 10月 己巳條, 卷36 中宗 14年 9月 己卯條 等

8) 南澗의 詞章이 보잘 것 없음을 한 이유로 들어 그를 탄핵하는 上疏文의 一節도 이러한 그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詞章雖爲優靡 亦浮靡而小氣骨 不足以勸獎後進(中宗實錄 卷31 中宗 14年 9月 己卯條)

9) 南澗을 탄핵한 沈義에 대해 趙光祖는 '他日 搖動朝廷者 必此人也'라고 공박하고 南澗을 옹호했다. (同上).

이미 현실성을 상실하고 그의 의식 속에 주관화된 관료적 문인의 이상과 좌절된 그의 의지를 삶과 행동 속에 실현시켜 보기 위해 작가는 허구적 서사 형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幻想의 허구가 단순히 적대적 현실에 대한 작가의 願望 充足으로 유발된 것은 아니다. 작품의 허구는 과거 文士들과 그들의 詩에 대한 관심과 애착 속에서 배태할 수 있었으며, 관료적 문인의 이상은 實在했던 과거 文士들을 통해서만 實現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의 허구는 그러므로 一面으로 이상과 의지를 실현하려는 각각의 願望을 反映하고 있지만 一面으로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事實에 어느 정도 기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작품의 허구는 崔致遠·乙支文德을 정점으로 하여, 麗末一鮮初의 名儒·賢臣으로 봉건관료사회의 역사적 전개에 寄與해 온 名文章들과 그들의 創造的 傳統에 대한 작가의 긍정과 신뢰를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선배 문인들과 一體感 속에 文人—官僚 社會를 구축하고 있는 이 작품의 허구는 바로 이와같이 實在했던 과거 文士들의 창조적 전통에 대한 작가의 一體感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歷史上의 實在 人物을 통해 理念的 世界를 구축하고 있는 이 작품의 허구는 그러므로, 자기 집단의 歷史的 同一性을 과거 전통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過去志向的·反動的 歷史意識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逃避的·反動的인 작가의 歷史意識의 한계는 물론 봉건관료사회의 폐쇄성과 당대 관료사회의 정치·사회적 불안이라는 역사적 조건의 한계에서 연유한다. 작가는 대립과 모순이 극에 달한 당대 관료사회 속에서 좌절된 그의 의지를 실현할 방도를 찾을 수 없었으며, 관료사회의 어느 층에서도 일체감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실에 대한 이 같은 작가의 좌절과 불안은 도피적 환상 속에도 깊이 도사리고 있다.

작품의 결말은 哀悽로운 孤獨과 苦痛 속의 幻滅로 끝난다.<sup>10)</sup> 그런데 이와 같은 幻滅로 떨어지게 되는 決定的 契機는 작가가 苦難의 현실 속에서 실제 경험한 좌절이 환상의 세계에서도 꼭 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吏判 南

10) 遽然覺則 腹漲如鼓 殘燈欲翳 病妻臥側 呻吟而已(國文學通論, p. 306)

浪을 탄핵한 뒤 玉堂 등의 참소를 받아 官界에서 축출된 그의 체험이, 右相 李奎報를 탄핵한 뒤 翰苑의 참소를 받아 文人王國으로부터 축출되는 幻想 속의 事件으로 바꾸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이처럼 해체되어 가는 자기 집단의 이념을 과거 전통을 통해 재확인하고 현실을 도피하여 이상에 탐닉해 봐도 그것은 경험적 현실에 의해 無化될 뿐이라는 각성을 이 작품은 보여 준다. 이것은 또한 실제에 있어 정치 윤리적 기초가 박약한 관료적 문인 집단의 이념의 허약성과 잠시 빠져들 수 있는 反動의 무의미를 작가가 이미 知悉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작가의 이율배반적인 의식 갈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작품의 환상이 근본적으로 자기 집단의 타락에 대한 反動에서 由來했으면서도 정치적 색채를 거의 띄지 않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환상 세계는 오히려 적대적인 정치 현실에 대한 무관심 속에 전개되는 예술지상주의적 세계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집착이 표면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대신 詞章과 唐律을 중시하는 文學觀에 대한 집착은 매우 강하게 표명된다. 작품을 정치·사회적 배경과 유리시켜 보는 한, 文人王國의 구축을 통해 시도되는 傳統의 확인도 중국의 文藝傳統에 對立되는 朝鮮의 文藝傳統이라는 文學史的 主體性의 추구로 풀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품 세계는 審美的일 뿐 아니라 동시에 享樂的이다. 綺羅星 같은 선배 문인들이 驚異롭게 등장하여 一體感 속의 安樂을 구가하고, 自我의 一方的 實現이 보장되는 작품의 幻想的 내용이 향락적일 뿐 아니라, 이 같은 幻想을 마련하는 작가의 태도가 또한 그러하다. 작품의 幻想 또는 적대적 현실에 대한 反動과 補償은 幻滅로 끝나는 그 結末이 말해 주듯이 작가의 진정한 윤리의식의 依歸處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무의미를 知悉하고 있는 작가의 일시적 遊戲의 방도였던 것이다. 즉 이 작품은 士大夫의 破寂을 위한 戲筆로 지어진 것이다.

11) 實錄을 보면 沈義를 탄핵하는 南渡一派의 참소가 끊이지 않자 그는 마침내 官界를 떠나게 된다. 곧 이어 터진 己卯士禍以後 수년간 그의 관계 기록이 없음을 보아 이후 그는 은거하면서 濟狂으로 南渡의 보복을 피한 것 같다.

향락을 위한 희필이라는 사실과 대응되는 것이 환상 세계의 향락적 성격을 보완하는 작가의 喜劇的 觀點이다. 작가의 주관에 다소 대립되는 인물들은 왜소한 모습으로 戲畫化되어 제시된다.<sup>12)</sup> 金時習은 작가의 주관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모반·전쟁 같은 극적 갈등을 야기하나, 사건 처리의 회극적 경쾌성 속에 대립과 갈등은 완화된다. 이처럼 회극적 관점을 통해 작가는 그들에 대한 批判的 距離를 표시하면서도, 일체감 속의 안락을 추구하는 작품의 목적은 전혀 손상시키지 않은 채, 오히려 향락의 흥미만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환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이 이루어지는 幻滅의 순간은 悲哀 속에서도 회극적 토운을 잃지 않고 있기에 양자 사이의 대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면서 환상의 허무함을 폭로하고 있다.<sup>13)</sup>

다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는 이 작품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작품의 향락적·회극적 성격은 이 작품이 독자의 요구에 영합하는 통속적 취향 속에 섞여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 2) 傳統意識과 幻想의 叙事的 性格

泗水夢遊錄과 金華寺夢遊錄의 두 작품은 그 幻想의 내용이나 창작의 배경, 작가의식의 면에서 大觀齋夢遊錄과 유형적 공통성을 지닌다. 때문에 두 작품은 大觀齋夢遊錄의 아류로 볼 수 있는데, 독창성이나 문학적 흥미의 면에서 前作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두 작품의 창작 배경과 작가의식을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히 밝히고 이어 이 세 작품의 유형적 특질과 각 작품 간의 주목할 만한 差異點을 개관하기로 한다. 분석 및 추론 과정을 대충 생략하는 것은 大觀齋夢遊錄의 경우와 유추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泗水夢遊錄<sup>14)</sup>에는 孔子를 위시한 그 제자들과 孟子·程·朱 등 儒學者들로 이루어진 봉천관료국가가 구축된다. 그들의 學業에 따라 관직이 배수되고, 朝廷에서는 性理의 道學이 강론되며, 儒士를 崇用치 않은 君王이 여기서

12) 當聽前 知印一人 言<sup>7</sup>搖頭動足 輕躁無雙 問之乃下季良也 胥吏一人 長身古貌 如佛家所謂尊者像 問之 乃叡好仁也。(國文學通論, p. 304)

13) 앞의 주 9) 참조

14) 資料는 人文評論 2卷 6號(人文社, 1940) 所在 한글本



규탄된다. 鄭夢周를 비롯한 東方의 九賢도 이곳에 합세하며, 楊·墨과 老·佛軍의 침공이 격퇴되기도 한다.

孔孟과 宋儒를 아우른 中國 官人學者들을 통해 봉건관료체제의 이상을 그리고 性理學의 정치 이념을 밝히고 있는 이 작품은, 그들의 후예인 士林 집단의 理念 및 역사적 기능을 재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작품 역시 과거 선배들의 전통을 통해 자기 집단의 역사적 동일성을 구하려 하는, 현실 속의 자기 존재에 대한 작가의 不安을 보이고 있으며, 작품의 幻想은 주인공의 역사과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작품이 17世紀末—18世紀初에 걸친 在野士林 一角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때 急増된 書院·祠宇의 팽창을 배경으로 작품이 출현했음을 示唆하고 있다. 書院·祠宇는 작품에서 표명되고 있는 바와같이 先賢의 學統을 保守·確認함으로써, 중앙 권력에서 소외된 士林들이 그들의 정치 이념과 사회적 기능을 천명해 온 在地勢力의 據點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 역시 大觀齋夢遊錄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단의 정치·사회적 기실반의 不安 및 관료사회의 모순에 대한 反動으로 출현하였으며, 적대적 현에 代置할 수 있는 幻想의 향락에 작가의 기본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點은 金華寺夢遊錄<sup>15)</sup>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는 漢·唐·宋·明의 創業之主를 위시하여 四代에 걸쳐 明滅했던 중국의 帝王과 英雄 300여명이 등장하여 祝宴을 벌인다. 그들의 역사적 업적에 따라 班列이 정해지고 봉건관료 기구의 이상적 형태가 편성되기도 한다. 王道와 德治, 節義와 正統思想이 강조되고, 이런 儒敎理念에 어긋난 王朝과 인물들은 논쟁과 전쟁을 통해 규탄 축출된다.

이 작품은 賢王·名臣이 偉業으로서 이룩한 관료 정치의 전통을 통해 봉건관료사회의 이념과 士大夫의 역사적 기능을 밝히고 있다. 幻想을 꿈꾸는 주인공이 當代 사회를 무시해 버리는 方外의 人物로 그려진 점으로 보아, 이 작품 역시 양반관료사회의 모순과 이에 따른 士大夫層의 不安에 대한 反動

15) 資料는 國立圖書館所藏 漢文 筆寫本

으로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찬란한 위업을 남긴 과거 영웅들의 황홀한 宴樂으로 진행되는 작품의 환상이, 관료사회 속에서 儒敎的 諸價値를 실현할 길 없는 士大夫作家의 現實的 無力과 不安을 잊기 위한, 도피적·향락적 趣向을 지니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大觀齋夢遊錄을 포함한 이들 세 작품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형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작가 또는 주인공들은 봉건관료사회의 이상과 현실 간의 모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현실을 초월하여 관료사회의 이념적 질서에 갈등 없이 安住하려는 逃避的이고 願望充足的 幻想을 그리고 있다는 것.

둘째, 작가는 당면한 역사 과정의 모순, 또는 양반관료집단의 對立·分裂에 대한 反動으로, 양반 사대부들의 理想的 共同體를 구축하는 사건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

셋째, 그러나 찬란한 과거 전통에 의거하여 쇠퇴해 가는 자기 집단의 이념과 文化·歷史的 機能을 재확인하려는 작가의 의식은 反動的이고 理念擁護的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

넷째, 과거 위인들이 경이 속에 등장하여 이념적 세계를 구축하고 안락을 구가하는 환상적 작품 세계는 향락적·통속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

세 작품은 이상과 같은 유형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나 또한 작가의식이 나 작품 구조의 면에서 각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우선 大觀齋夢遊錄에서는 幻滅을 통해 환상과 현실의 對照가 강조되고 있음에 反해, 다른 두 작품에는 이러한 환멸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幻滅이 없는 두 작품은 大觀齋夢遊錄과는 달리 쉽게 붕괴될 수 없는 봉건사회체제의 社會·經濟的 기반에 根據한 정치 이념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작품은 그러므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大觀齋夢遊錄보다 강하고, 회극적 성격은 다소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두 작품 사이에도 각각의 차이는 있다. 泗水夢遊錄에서는 환멸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숭고하고 경이로운 환상 세계(理想的 世界)의 일부가 現實化되어 나타나 그 實在를 증명하

고 있다.<sup>16)</sup> 이를 통해 주인공(따라서 작가)이 개탄해 마지않는 역사 과정의 모순은 언젠가 극복되고, 儒敎政治의 理念은 實現될 수 있으리라는 信念이 강하게 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金華寺夢遊錄의 경우에는 幻滅의 쓰라림도 없지만 그렇다고 환상 세계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 있지도 않다. 작품의 주인공은 애초부터 사회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는 무관심 또는 초월해 있고, 幻想 속의 理念的 世界도 하나의 壯觀으로 驚異 속에서 觀賞될 뿐이다. 前者의 경우는 士林 측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옹호해야 할 절박한 현실적 요구가 있기에, 道學者的 근엄 속에 불안이 음폐되고 당위적 이념이 강조되는 것이다. 後者의 경우는 자신을 소의시킨 당대 관료사회에 대해 무관심을 표방하면서도, 봉건관료사회의 재가치를 安樂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 향락적 취향이 보다 두드러진다.

이상과 같은 작가의식의 차에 따라 작품의 虛構의 성격 또는 叙事構造도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당대 관료사회의 분열과 대립에 대한 反動으로 이루어진 환상의 허구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집단적 공동성 내지는 일체감을 추구하는 데에 主眼點이 가 있다. 이들 작품에서 작가의 목적은 애초부터, 多數 인물의 복합을 통해 理念的 共同體를 構築하고 집단의 이념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허구적 상황 속에서 葛藤의 持續의 高揚이라든가, 사건 전개에 단일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sup>17)</sup> 그러나 多數 인물의 복합적 관련과 단편적 행동·대화를 통해서나마 허구적 세계가 形成·展開되어 가고 있는 이 작품들의 叙事的 性格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夢遊라는 모티프를 叙事的 基本 틀로 취하고 있는 이들 작품 중, 특히 大觀齋夢遊錄은 夢遊의 모티프를 傳奇的 旅行譚으로 발전시켜 夢遊者의 모험을 통해 叙事的 골격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夢遊者의 劇中 介入이 최소한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없는 나머지 두 작품은 目擊譚의 性格을 지닌다. 泗水夢遊錄의 환상 세계는 특히, 이념적 공동체와 그 적대자와의 대립·갈등(楊·墨·老·佛과의 전쟁)으로 서사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金華寺夢遊

16) 이념 세계의 實狀을 적어 세상에 傳하라는 韓愈의 글을, 꿈이 깬 주인공이 소 매속에서 발견하는 데서 작품은 끝난다.

17) 때문에 徐大錫教授 前揭論文에서는 이들 작품이 叙事文學이 아니라고 했다. 徐大錫, 前揭論文, p. 140.

錄의 경우는 혼란한 群衆이 집단의 이념적 질서를 확립해 가는 宴會의 과정 (宴會의 參退·配席·班列·職制等)을 통해 葛藤——解消 과정에 대응되는 서사적 골격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작품의 서사 구조는 알레고리(寓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老·佛·楊·墨은 특정한 역사적 인물로서가 아니라 그들로서 대표되는 철학 사상의 象徵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며, 그들이 儒家王國과 벌이는 劇的 對立 역시 상징적·비유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런 점은 金華寺夢遊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짧은 紙面에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술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 작품에서 작가나 독자의 관심이 그들의 특정한 역사적 행위나 인격 자체에 개별적으로 分散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이 통일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봉건관료사회의 普遍的 諸價値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그 政治·倫理的 類型性을 辨別하는 데에 독자의 흥미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허구는 이와같이 특정한 人物을 보편화하여 그 類型的 意味를 강조하고, 유형적 인물간의 극적 대립과 갈등을 통해 그 윤리적 제가치를 질서화해서 하나의 理念 속에 통합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허구적 인물과 사건들은 主題的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現實批判型 夢遊錄

「現實批判型」夢遊錄이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連累·犧牲된 몇몇 人物 (冤魂)들이 등장하여 사건 당시의 정치·사회적 부조리를 반성·비판하는 내용의 작품들을 말한다. 元生夢遊錄·達天夢遊錄·皮生冥夢錄·江都夢遊錄 등이 이 유형에 속하며 元生夢遊錄은 그 최초의 작품이다.

#### 1) 元生夢遊錄의 問題意識과 그 背景

元生夢遊錄<sup>18)</sup>은 알려진 바와 같이 林悌의 所作으로,<sup>19)</sup> 端宗復位運動에 실

18) 資料는 白湖文集(木版本) 附錄 所載

19) 이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비가 있었으나 黃沮江敎授의 논문('元生夢遊錄과 林悌文學', 韓國叙事文學研究, 檀大出版部, 1972.)에서도 밝혀졌듯이 林悌의 所作임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패한 死六臣의 冤魂들이 등장하여 작품의 주인공 元生과 만나 世祖의 篡奪을 규탄하고 復位運動에 실패한 원한을 詩로 읊는 내용의 작품이다.

어리고 무력한 君王을 보좌하여 國政을 관장한다는 것은 대체로 封建官僚社會의 歷史的 主體로 자부하고 있었던 士大夫들의 理想이었으며, 義理와 名分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封建社會의 儒敎的 理念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 요강이었다. 死六臣의 좌절은 그러므로 士大夫 또는 兩班官僚의 理想의 좌절을, 世祖의 찬탈은 유교 이념의 근본을 배반한 봉건사회의 歷史的 現實을 劇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士大夫의 理想의 좌절과 함께, 봉건관료사회의 理念과 現實의 모순을 문제 삼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은 대체로 16세기 후반, 兩班 士大夫들의 적극적인 政治參與意識과 이에 수반되는 兩班官僚의 分裂에서 그 배경적 관련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양반관료사회의 이념의 담당자인 士大夫(士林)들은 안정된 政治·社會的 基盤을 구축하고, 관료사회의 前面에 나서서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현실을 긍정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정치 이념을 실현해야 할 단계에 당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봉건관료체제 자체가 가진 근본적 모순은 계속 심화되어 黨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분열된 관료 집단은 朋黨政治의 未熟으로 인해 黨派 간의 對立을 격화시키고 그 理念의 所在를 昏迷케 했다.<sup>21)</sup> 林悌는 이와 같은 당쟁 초기 관료사회 분열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더디게나마 宦路에 진출하여 그의 경륜과 포부를 펴보려 했던 적극적인 兩班 士大夫 의식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끝까지 봉당에 뇌동하지 않는 孤高한 人品과 節義때문에 宦路의 薄運을 면할 길 없어, 마침내는 관료사회를 등지고 말았던 人物이다.<sup>22)</sup> 그러

20) 이 점은 堯·舜·禹·湯의 禪位를 공격하는 작중인물의 臺辭를 문제삼은 林堯澤 教授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한국사 11 양반관료사회의 문화(국사편찬위원회, 1974), p. 286.

21) 以上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成樂黨, 韓國治爭史, 韓國文化史大系(高天民族文化研究所, 1965) 參照

22) 林白湖의 傳記的 考察은 前揭한 黃涇江 教授의 論文에 詳細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이제까지는 그의 方外的 態度만이 注目되어 왔

니까 林梯는 당대 관료사회에 대해 批判的인 士大夫로서, 경험적 현실과 실현되어야 할 이상 사이의 모순을 體驗을 통해 어느 누구보다도 切迫하게 인식한 인물이었으며, 관료사회에 대해 깊은 포부와 적극적 참여의식이 있었기에 이를 배반당한 그의 좌절은 한층 심각한 것이었다. 死六臣의 좌절을 통해 士大夫의 좌절과 봉건관료사회의 모순을 문제삼고 있는 元生夢遊錄은 그러므로 이러한 작가의 좌절과 당대 관료사회의 모순이 투영된 작품이다<sup>23)</sup> 높은 기개와 비판적인 言辭 때문에 관료사회로부터 배척받고 좌절과 고뇌속에서 死六臣의 冤魂을 만나는 元生<sup>24)</sup>은 바로 이 작품을 짓는 작가의 分身인 것이다.

한데 이와 같은 작가의 문제의식이 어째서 꼭 死六臣의 死靈을 등장시키는 虛構를 통해 표현되었는가는 좀더 따져 봐야할 문제이다. 우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작가에게 요구된 것은 봉건관료사회의 역사적 모순과 士大夫의 좌절을 부정하는 사건의 體驗이었다는 것이다. 좌절과 모순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기에 좌절된 者의 死靈이 나타나 그 不條理를 규탄하는 사건이 虛構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사건 과정을 통해 좌절과 모순은 극복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좌절과 고뇌 속에서 元生은 死六臣과 만났으나 비판과 규탄끝에 이르는 사건의 결과는 결국 양쪽 모두 다시 좌절과 암흑속에 깊이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가는 元生이라는 허구적 인물과 死六臣을 만나는 허구적 사건을 통해 관료사회의 모순과 士大夫의 좌절을 문제삼고 그 극복을 心情的으로 요구할 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건(또는 행동)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좌절과 모순을 부정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와 신념은 강하지만, 또한 그에 못지 않게 그의 좌절은 깊고

기에 여기서는 晩年の 그와 달리 少壯時의 白湖는 出仕立功하려 했던 兩班士大夫로서 意欲 역시 깊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 23) 黃涓江教授는 作品末尾의 “戊辰仲秋海月居士志”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작품이 白湖 20歲 때(宣祖元年)의 所作으로 보고 있다(黃涓江, 前掲書, p. 294). 그러나 이 구절도 허구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그 內容으로 보아 작품은 白湖의 좌절과 사회적 갈등이 보다 깊어지고 思想이 성숙된 시기의 所作으로 볼 수 있다.
- 24) 世有元子虛者懷慨士也 氣宇磊落不適於時 屢抱羅隱之冤(白湖文集 附錄 元生夢遊錄 序頭)

현실의 모순 역시 심각한 것이다. 혹은 관점을 바꾸어, 작가가 당면한 모순과 좌절이 너무도 심각하기에 이미 좌절을 극복하고 이념을 실현할 모든 가능성이 絶滅된 과거의 死靈에 共感하며, 그들을 통해 이를 문제삼고 있다고 봄이 옳을런지도 모른다.

이와같이 해결할 길 없는 작가의 內的葛藤은 결국, 봉건관료사회 自體의 이념상의 모순을 인정하면서도<sup>25)</sup> 그의 의식 속에서는 士大夫의 義理와 명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個人的 誠實의 表白으로 그 감정적인 妥結을 본다. 그리하여 初聲에 터뜨리던 他人과 社會에 대한 불평과 규탄은 이윽고 중단되고, 詩를 통해 義理와 名分에의 信念을 표백하고 좌절의 恨을 달래는 內的 和解로 사건은 끝난다. 그러나 詩會를 끝내며 그들과 작별하는 元生의 詩와 전체 사건의 경과를 결론하는 海月居士의 詩는 憂愁와 절망으로 가득차 있다(引用省略).

이처럼 元生夢遊錄은 士大夫로서 작가가 갖는 이상과 관료사회의 현실, 또는 봉건관료사회의 이념과 역사과정의 실재가 근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작가의 절망 또는 비관적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 자체를 문제삼고, 아직 그 절망의 극복을 요구하고 있는 작가의 內的葛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元生夢遊錄이 叙事構造上 여러가지 결합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實在했던 과거 人物의 追懷, 그들을 통한 역사 과정에 대한 논의, 詩 낭송으로 전개되는 夢遊世界는 傳과 論, 詩의 주제적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이 근본적으로 元生이라는 허구적 인물을 창조하고 그의 좌절과 고뇌를 그리고 있으며, 목격담의 형식을 통해 극적 사건을 개입시킴으로써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품의 叙事的 性格은 의심

25) 당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그 역시 理念的 秩序(天道)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歷史現實이었다면 봉건관료사회의 현실과 理念간의 모순은 쉽게 清算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作中人物 海月居士의 辯은 이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嗚呼 勢使然邪時使然邪 然則 不可不歸之於時與勢 而不可不歸之於天也 歸之於天則 禍善禍淫非天道也邪 夫不可歸之於天則 冥然漠然此理難詳, 上揭書)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허구적 人物 元生의 고뇌 속에 떠오른 死六臣은 특정한 歷史的 事實으로서가 아니라 自身과 같이 歷史的 모순 속에 좌절된 士大夫의 典型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死六臣은 元生과 마찬가지로 작가 林梯의 좌절과 고뇌를 표현하기 위한 象徵, 또는 寓意의 人物로 보아 무방한 것이며 그들의 대화·토론을 통해 양반관료사회의 모순을 극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2) 批判意識과 內的 葛藤의 劇化

元生夢遊錄 이후 그 영향을 받아 達天夢遊錄<sup>26)</sup> 등 3작품이 창작되었다. 達天夢遊錄은 壬亂으로 戰死한 地方官, 將軍, 義兵將들을 등장시켜 당시의 戰況을 반성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皮生冥夢錄<sup>27)</sup>은 壬亂 직후 가족의 시체를 미처 收葬치 못하는 非人道的인 慘狀과 관련하여 貪黷한 地方官 李克信의 非行과 포악한 성품을 亂中遭得이 된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해 비난한 작품이다. 江都夢遊錄<sup>28)</sup>은 丙亂時 江華 함락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江華 留守와 朝廷大臣들을 戰亂으로 희생된 그들의 婦女의 입을 통해 규탄한 작품이다.

이들 작품의 內容 및 작가의식에 대해서는 기왕의 소개가 있었기에<sup>29)</sup> 여기서는 이들 작품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작가의식과 작품구조상의 차이만을 밝히고 이어 元生夢遊錄을 포함한 이들 작품이 가지는 유형적 공통성을 추출하기로 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差異點으로 元生夢遊錄과는 달리 나머지 세 작품에서 작가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當面한 時代의 特定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不條理한 事態의 真相을 告發·暴露한다는 작가의 목적의식이 元生夢遊錄에 비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 우리가 중시할 것은 이러한 작가의 의도 역시 元生夢遊錄과 마찬가지로, 목격담이란 형식 속에 극적 장면을 삽입한 夢遊錄의 虛構的 敘事形式에 의해 高揚된 표

26) 資料는 高大圖書館 所藏 漢文 筆寫本

27) 資料는 國立圖書館 所藏 漢文 筆寫本

28) 資料는 國立圖書館 所藏 漢文 筆寫本

29) 徐大錫, 前揭論文



현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목격담의 형식은 감추어진 사태의 真相을 드러내 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식할 수 있는 敘事的 方案이며 無辜하게 희생된 冤魂의 등장은 사회적 부조리와 역사 과정의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劇化的 方案인 것이다.<sup>30)</sup>

다음, 보다 중요한 문제로, 작가의 사회적 입장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의 의도와 태도가 다르고 그와 함께 작품구조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元生夢遊錄은 소외된 士大夫 입장에서 양반관료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문제로 제기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展望이 서지 않았기에 모순을 규탄하다 말고 詩를통해 內的和解를 시도했다. 執權 士大夫에 대한 소외된 士大夫의 비판으로 볼 수 있는 皮生冥夢錄에서도 이런 點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元生夢遊錄과는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의 태도가 悲壯하지 않고 諧謔的인 面이 있다. 賤民(金儉孫)의 亡靈을 등장시켜 공격하려는 李克信의 또 다른 아비이며 克信의 어미와 雲雨의 情이 깊은 同胞라고 주장케 하여 生父의 亡靈을 陵辱하는 것이다. 적대적 현실을 간접적으로 조롱하고 경멸함으로써 사실상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의식 속에서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皮生冥夢錄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士大夫의 입장에서 집권 사대부 세력을 비판한 江都夢遊錄에서는 그러나 이와 같은 詩나 해학을 통한 內的和解가 없다. 격렬한 규탄과 처절한 哀訴로 시종 일관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작품과 달리 犧牲된 冤魂들의 비탄을 慰撫하고 內的和解에 기여하는 夢遊者의 劇中 介入이 배제되어 있다. 문제된 역사적 모순 또는 정치적 부조리는 革破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요구가 보다 절박하고 심각한 것이며, 집권층의 不義와 無能으로 인한 희생과 상처는 보상받을 길 없다는 것을 냉정히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達天夢遊錄의 경우는 위의 세 작품과는

30) 그러나 허구 세계에 등장하는 死靈이 附帶狀況의 不條理나 모순을 비판하기 위한 劇化的 方便으로서 虛構的·寓意的 의미가 강한가 아니면 實世界에 존재했던 특정한 人間의 면모를 지시하는 측면이 강한가는 작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皮生夢遊錄의 경우는 허구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고 達天夢遊錄의 경우는 그 반대다.

31) 作家 尹繼善은 作品 序頭에서 湖西 暗行의 御命을 받고 내려 가는 중임을 밝히고 있다.

달리 집권(士大夫에 의해 창작되었기 때문에<sup>31)</sup>) 여타 작품들의 유형적 공통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壬亂의 敗戰은 바로 작가 자신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므로 戰況을 반성하고 敗戰과 戰死를 한탄하기는 해도,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뚜렷이 없다. 오히려 孤軍奮鬪와 盡力忠誠에도 불구하고 敗戰의 책임을 도맡아야 하는 戰歿 孤魂들의 悲壯한 좌절이 서로에 의해 慰撫되며, 따라서 이 작품도 詩宴을 통한 內的和解로 끝날 수 밖에 없다. 祭文을 첨가한 結末이 말해 주듯이 이 작품의 의도는 전몰 영웅의 精忠苦節을 기리고, 그들의 孤魂을 哀悼하면서 敗戰의 反省的 克服을 다짐하는 데에 있다.

이상과 같은 差異點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 작품에서 理念提示型과는 구분·대조되는 이들 작품의 대체적인 유형적 특질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양반관료사회의 사회·역사적 모순을 正面으로 인식하고, 갈등 속에서 이를 비판·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反動的·逃避的인 「理念型」의 경우와는 달리 역사적 모순으로 인해 깊은 좌절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生存의 절박한 문제로 인식된 것이다.

둘째, 특정 사회·역사적 모순을 否定하기 위해 그러한 모순에 의해 犧牲된 者의 亡靈을 등장시켜, 이를 규탄하는 사건을 연출한다. 그리하여 부조리와 모순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현실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한다.

셋째,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고 모순의 해결을 心情的으로 요구할 뿐, 모순을 해결할 방도나 행동방식을 강구·제시하지 못한다. 깊은 좌절이나 모순을 극복할 전망이 서지 않기 때문에, 內的葛藤에서 시작해 내적화해로 끝난다.

넷째, 이처럼 좌절과 모순을 극복할 展望이 없는 가운데 좌절된 者의 主觀이 토로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분위기는 主情的이고 悲劇的이다. 그리고 통속적·회극적·향락적인 「理念型」과는 달리 작가의 어조는 悲壯하고 공격적이며 윤리의식은 준열성을 띤다.

#### 4. 장르적 性格과 小說史的 位置

夢遊錄의 장르적 성격과 그 소설사적 위치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는 가

운데 개관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두 유형으로 논의해온 이들 작품들은 결국 ① 역사 과정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士大夫들의 관심을 ② 夢遊譚이라는 허구적 서사 형식을 통해 표현했다는 공통성을 지닌다. ②의 성격을 중시할 때 夢遊錄은 龍宮赴宴錄 등 좌절된 士大夫의 願望을 표현하는 傳奇的 夢遊譚(또는「夢遊小說」)의 한 變型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이와 같이 傳奇的 性格이 분명한 「理念提示型」과는 달리 變亂에 희생된 死靈의 怨恨이 하소연되는 「現實批判型」의 환상은 좌절된 民衆의 恨을 표현하는 冤魂說話에 보다 가까운 연원을 둔 그 士大夫의 變型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그 發想과 敘事構造를 달리하는 두 유형의 작품이 상호 영향을 授受하면서 夢遊錄이라는 통일적 명칭 아래 流行될 수 있었던 것은 ①의 특성이 ②를 경계하는 士大夫의 意識의 持支를 받았기 때문이다.<sup>33)</sup>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증시하여 이들 작품을 여타의 夢遊譚(小說)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類型으로 규정하자는 견해는 근본적으로 타당성을 지닌다.<sup>34)</sup>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증시한 나머지 이들 작품이 일률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敘述文學이라 규정하고, 이들을 서사문학사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관점의 차에 따라 再考해 볼 문제이다.

詩話(大觀齋夢遊錄), 經(泗水夢遊錄), 史(金華寺夢遊錄), 傳(元生夢遊錄) 따위의 장르를 통해 이미 熟知하고 있는 사실들을 구태여 虛構의 形式을 통해 再構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는,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주관적 신념의 표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작가의 주관과 괴리된 채 전개되는 역사과정의 모순에 對抗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역사적 사실을 虛構를 통해 變形시킴으로써, 이러한 괴리와 모순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념적 공동체를 구축하고 死靈의 하소연을 듣는 허구적 사

32) 張德順, '夢遊錄小考'(東方學志 4, 延大出版部, 1959)

33) 夢遊錄이 유행하게 된 것은 元生夢遊錄 이후로 볼 수 있으며, 泗水夢遊錄과 金華寺夢遊錄은 元生夢遊錄의 영향을 받고 창작되었으므로 大觀齋夢遊錄과는 달리 작품 후반이 詩宴으로 끝난다. 그러나 元生夢遊錄이 大觀齋夢遊錄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34) 徐大錫, 前揭論文

건은 이와 같은 작가의 이상과 의지가 투영된, 역사과정에 대한 '신념'을 행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目擊譚 또는 傳奇的 旅行譚의 형식을 취하고 허구적 사건을 통해 작가의 주관울 피력하고 있는 이들 작품을 우리는 敘事文學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夢遊錄이, 관료 집단의 분열과 대립 등 역사적 모순이 심화되던 朝鮮中期 양반관료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주로 관료사회에서 소의된 士大夫들의 사회적 갈등과 역사 과정에 대한 관심의 高潮에서 誘發된 士大夫들의 독특한 敘事類型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허나 士大夫의 독특한 敘事類型으로서, 또는 나아가서 하나의 下位 장르로서 夢遊錄의 유형적 성격을 강조할 때 夢遊錄이 가지는 特異性이란, 현실의 경험 과정과 단절된 故人에 假托하여 작가의 주관울 객관화하려는 그 서사적·허구적 성격의 한계에 있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당대 사회의 역사적 모순과 士大夫들의 사회적 갈등에서 연유한 서사적·허구적 충동을 논외로 한다면, 夢遊錄이 창출·유행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補完的 說明이 가능하다.

우선, 초월적 비현실적 체험을 서술하는 夢遊譚 一般의 출현 배경이기도 하겠지만, 사회·역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士大夫들에게 이를 극복해 갈 방도가 개방돼 있지 않았던 양반관료사회의 폐쇄성과 士大夫들의 깊은 좌절을 들 수 있겠다. 아울러 우리는 故人의 英靈이 活化된 夢遊錄의 특이한 환상의 유래를, 主體와 客體의 分離를 의식하지 않고 外界에 實在하는 客體에 작가의 主觀을 假托해 온, 寓言이라는 士大夫의 독특한 文藝傳統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35)</sup>

이처럼 夢遊錄은 양반 사대부들이 역사 과정에 대한 그들의 갈등과 신념

35) 앞에서 「現實批判型」작품들이 冤魂說話의 士大夫의 變型이라 했는데, 그 變容의 방식은 바로 이 寓言이다. 冤魂說話도 그 근본 發想은 이같은 共感作用에 의한 것일 터이다. 한편 관점을 달리해 보면, 이들 작품에서 共感이 일어나는 대상은 인간이므로, 夢遊錄의 환상은 과거 전통에 대한 일체감과 집단적 과정에 대한 公憤이라는 士大夫들의 집단의식, 역사의식의 소산이라는 말도 된다. 작품에 표현된 이 같은 의식 내용은 前章에서 강조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표현방식에만 주목한다.

을 표현하기 위해, 歷史的 實在에 무관심한 虛構의 叙事類型(傳奇的 夢遊譚·冤魂說話)을 그들 나름의 固有한 사고 방식과 표현 방식에 의해 變形시킨 독특한 類의 작품이다. 그리하여 봉건관료사회 질서가 해체의 조짐을 드러내고, 이에 따라 소외된 士大夫들의 역사과정에 대한 관심이 多邊化되면서 더 이상 폐쇄적 사회 공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자, 夢遊錄의 창작도 그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만 것으로 보인다. 영웅소설과 결합한 天宮夢遊錄과 저마무전(夢決楚漢訟)은 夢遊錄의 變質을 뜻하며, 이것은 또한 夢遊錄이 傳統的인 士大夫 意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을 뜻한다. 夢遊錄을 창작하던 소외된 士大夫들의 작가 의식은 社會變化에 따라 士大夫들의 의식이 分化되면서 새로이 등장한 叙事形式을 통해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5. 結 語

夢遊錄은 역사 과정의 客觀的 事實에 대한 관심과 작가의 주관적 이상 또는 의지를 실현하려는 욕구를 함께 표현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대립적 층동의 긴장 속에서 창작된 작품들이다. 本稿에서는 後者의 측면을 重視하여 夢遊錄의 虛構的·叙事的 성격을 강조하고, 갈등하고 있는 작가의 역사의식을 규명해 보려 했다. 특히大觀齋夢遊錄과 元生夢遊錄이 지니는 문학적 가치와 문학사적 比重을 중시하여 이들의 배경, 작가 의식 및 작품 구조를 상호 관련하여 논의하고, 여기서 얻은 결론을 일반화하여 享樂的·反動的·理念擁護的인 大觀齋夢遊錄系 작품들과 告發的·悲劇的·主情的인 元生夢遊錄系 작품들의 유형적 특질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이들 작품이 士大夫들에게 固有한 文學意識과 歷史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독특한 叙事類型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小說史的 關聯을 살폈다.

이상에서 논의한 문제는 관점을 달리한 기왕의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언급되었던 것들이다. 기왕의 연구를 보완하는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바로 이때문에 抽象에 치우쳐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철저하지 못하고 論證에

疎漏했던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夢遊錄의 문학사적 중요성을 士大夫들의 독특한 文學形式이라는 데서 찾고 있으면서도, 漢文辭의 천착을 통한 작품의 평가에 未及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士大夫의 후예들인 開化期 知識人에 의해서도 夢遊錄은 창작되었다. 開化期의 夢遊錄은 민족적 위기의식 속에서 봉건사회의 제모순을 비판하는 한편, 식민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동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작품에서 朝鮮時代 夢遊錄의 傳統의 영향을 찾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각 작품은 또한 그 작가의식이나 작품의 형식면에서 前代 夢遊錄에 비해 많은 變形을 보여 주고 있어, 한 시대에 유행되었던 풍유록의 유형적 특성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이들 작품을 함께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